

셀예배 교안

열왕기상 9:1-10 | 솔로몬의 두 프레임

다함교회 | 열왕기상 강해 | 진행 시간 약 70분

인도자 준비 안내

- 이번 과의 핵심 주제는 “두 개의 창틀(프레임)”입니다. 숫자·크기·규모로 신앙을 증명하려는 프레임, 그리고 거룩한 명분 뒤에 자기 욕망을 숨기는 이중성의 프레임입니다. 솔로몬을 비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셀원 각자가 자기 삶을 바라보는 창틀을 점검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 초점은 “규모가 크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규모로 증명하려는 마음”입니다. 나눔이 특정 교회나 사람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흐르면, 열왕기상 9장 4절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로 다시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 이중성에 관한 나눔은 민감할 수 있습니다. 고백을 강요하지 마시고 인도자가 먼저 짧게 자신의 이야기로 문을 열어 주십시오. 셀에서 나눔 이야기는 셀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않기로 처음에 약속합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마음(빌 2:5)과 은혜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A4 백지(각 1장, 마지막 적용 활동용).

셀예배 순서

- 찬송 — 새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5분)
- 마음 열기 나눔 (10분)
- 말씀 봉독 — 열왕기상 9:1-10 (5분)
- 본문 해설 (15분)
- 나눔 질문 (25분)
- 적용 활동 — “나의 창틀 바꾸어 끼우기” (5분)
- 합심 기도 및 마무리 (5분)
- 결단 찬송 — 새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1. 마음 열기 (10분)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 나누어 봅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이니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나는 평소에 어떤 “창틀”을 통해 세상과 신앙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결과가 좋아야 의미 있다”, “남에게 보여야 가치 있다” 같은 나만의 틀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최근 한 주간, 무엇인가를 “숫자”나 “크기”로 판단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예: 현금 액수, SNS 좋아요 수, 회사 실적, 자녀의 성적 등)

2. 본문 해설 (15분)

(1)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 (1절)

본문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원하던 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섹”은 강한 욕구와 갈망을 뜻하는 말입니다. 같은 단어가 19절에서는 솔로몬이 국고성과 병거성, 마병의 성을 짓고자 한 “원하던 것”에 다시 쓰입니다.

성경 기자는 성전과 왕궁과 병거성을 한 단어로 묶어 버립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이라기보다 “내가 이루고 싶었던 목록” 가운데 하나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따르면 두 집을 모두 마친 것은 “이십 년 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때는 봉헌의 감격이 한창인 때가 아니라, 왕궁까지 다 지어 자기 소원을 모두 이룬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2) 첫 번째 프레임 — 숫자, 크기, 규모

솔로몬의 신앙은 처음부터 숫자와 함께 등장합니다. 기브온에서 드린 일천 번제(3:4), 칠 년 걸린 성전과 십삼 년 걸린 왕궁(6:38; 7:1), 봉헌 때 드린 소 이만 이천 마리와 양 십이만 마리(8:63)가 그렇습니다. 숫자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전보다 거의 두 배의 세월을 들인 왕궁은, 이 숫자들이 결국 무엇을 드러내는지 조용히 보여 줍니다.

규모의 프레임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인정하시겠지”라는 계산을 낳습니다. 신앙이 관계가 아니라 실적이 되고, 예배가 교제가 아니라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 정리

핵심 : 규모는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드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섰는지를 물으십니다.

(3)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하나 — 온전한 마음 (4-5절)

두 번째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성전의 크기나 제물의 수를 한 마디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행하라고 하십니다. “온전함”(통)은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둘로 나뉘지 않은 마음, 곧 한 분 하나님께 통째로 드려진 마음을 말합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준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의 업적이 아니라, 그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 높은 성전도 던져버리신다 (6-9절)

이어지는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7절).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을 것이라 하십니다(8절). 하나님은 방금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을, 마음이 떠나면 스스로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훗날 예레미야는 “이것이 여호와와의 성전이라” 외치던 백성을 향해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선포했습니다(렘 7:4). 건물의 높이는 결코 보증서가 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고, 포로기 독자들은 무너진 성전 앞에서 이 경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5) 두 번째 프레임 — 명분 뒤에 숨은 이중성 (11-14, 20-21절)

본문 바로 뒤에 성경 기자는 두 사건을 붙여 놓습니다. 첫째,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도운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넘겨주었습니다(11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땅은 왕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파마다 나누어 주신 기업이었습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레 25:23). 훗날 나봇이 목숨을 걸고 지킨 그 기업을, 솔로몬은 거래의 도구로 삼았습니다.

둘째, 솔로몬은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 있던 가나안 족속을 노역자로 삼았습니다(20-21절).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낸 받은 백성의 왕이, 다른 이들을 종으로 부려 건축을 이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 거룩한 명분 뒤에서 땅을 팔고 사람을 부리는 이중성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6) 복음으로 읽기 — 그리스도의 마음과 산 제사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마 12:6)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크심은 규모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빌 2:6-8). 솔로몬이 쌓아 올려 증명하려 했다면, 그리스도는 비우고 내려가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두 프레임을 벗는 길은 더 큰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빌 2:5).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둘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고전

3:16). 그러므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몸과 일상을 드리는 “산 제사”로 이어져야 합니다(롬 12:1).

3. 나눔 질문 (25분)

※ 관찰 → 해석 → 적용 순서로 진행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①③⑤를 우선 다룹니다.

① 관찰 — 소원을 이룬 순간

1절의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라는 표현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 표현이 19절에서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짓는 일에도 똑같이 쓰였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② 관찰 — 하나님의 조건

4-5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요구하신 조건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규모나 제물의 수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③ 해석 — 숫자의 프레임

솔로몬의 첫 번째 프레임(숫자·크기·규모)은 오늘 한국교회와 나의 신앙생활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④ 해석 — 명분 뒤의 동기

솔로몬의 두 번째 프레임(명분 뒤의 이중성)은 갈릴리 성읍을 넘긴 일과 가나안 족속을 노역자로 삼은 일로 드러났습니다. 나의 삶에서 “신앙의 명분” 뒤에 실제로는 다른 동기가 숨어 있었던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⑤ 적용 — 예배당 안과 밖

나에게 있어 “예배당 안의 고백”과 “예배당 밖의 삶”이 가장 크게 어긋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직장, 재정, 가정, 인간관계 등) 정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⑥ 복음 —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8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4. 적용 활동 — “나의 창틀 바꾸어 끼우기” (5분)

나누어 준 백지를 가로로 반 접어 위아래 두 칸을 만들고, 맨 아래에 한 줄을 남깁니다.

1. 위 칸 — 요즘 내가 숫자나 결과로 판단하고 있는 한 가지를 적습니다. (나 자신, 가족, 일, 신앙 중 무엇이든)
2. 아래 칸 — 그것을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바라본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3. 맨 아래 줄 — 로마서 12장 1절의 “산 제사”로 이번 한 주간 구체적으로 바꿀 한 가지를 적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한 선택 한 가지)

작성한 종이는 성경 사이에 끼워 두고, 매일 짧게 “오늘 내가 규모나 결과로 나를 증명하려 했는가?”를 점검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 새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를 묵상하며 암송해 보고, 다음 셀모임 때 짧게 결과를 나눕니다.

5. 합심 기도 제목

- 규모와 숫자로 성공을 증명하려는 프레임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마음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 예배당 안의 고백과 삶의 현장 사이의 이중성을 성령께서 드러내시고, 정직한 회개가 있게 하소서.
-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각자의 자리에서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의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6. 인도자 마무리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두 프레임을 통해 저희 안에 있는 낡은 창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크기와 숫자로 저희 신앙을 증명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시고, 주께서 찾으시는 것은 높은 성전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임을 다시 새기게 하옵소서.

거룩한 명분 뒤에 숨었던 저희의 이중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당 안에서 드린 고백이 직장 가정과 관계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살아 있게 하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지체들의 삶이 자리마다 주님이 함께하시고, 저희의 몸과 일상이 주께서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함교회 셀례배 교안 · 열왕기상 강해 · 왕상 9:1-10